

‘강기정호’ 시정 밑그림 구체화

산업·활력 중심 135개 공약 검토
광역협력 강화 조직개편·인사
팀단위 명칭도 시민 친화적 변경

계 예산 확보 외에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기업 유치 등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광주시는 활력 분야로 분류된 복합쇼핑몰은 국가가 지원하고, 투자 기업을 유치해 행정에서 신속히 인허가하는 ‘국가 주도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영산강 역사이팅 벨트 조성 사업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기본 설계비를 요구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강 시장은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 전기차 기지화물 위한 선도 실증사업인 미래 차 부품 메타 팩토리 구축, 영산강·황룡강변 와이(Y) 벨트 조성,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교류권 관광 특화공간 조성 등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안도 완성돼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책전략, 광역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을 키워 활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신활력추진본부를 만들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뉴딜사업을 전담하는 팀은 ‘광주 1도 낮추기 팀’, 관광 부서 ‘스토리텔링 팀’ 등 시민 친화적으로 명칭도 변경한다.

강 시장은 “육신 갈아서는 280개 팀을 모두 시민이 ‘그런 일을 하는구나’ 느낄 수 있게 바꾸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며 “외회 원 구성이 된 만큼 조직개편안이 통과하면 직원 인사를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와 관련해서는 모든 의견을 귀를 열고 듣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 추천위원 경험과 프로세스를 활용해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강기정 시장이 이끌어 갈 민선 8기 광주시정의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새로운 광주 시대 준비위원회)가 제시한 135개 공약사업과 관련해 실·국 별로 실현 가능성, 이행 절차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내년 상반기 1단계 추진 기간이 종료되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비, 실시설

전남 구제역 청정지 비결은 ‘백신 접종’

매월 항체양성률 역대 최고 경신

전남도가 백신 접종 지원을 통한 항체양성률 개선으로 국내 육지에서 유일하게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해 주목 받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소 98.9%, 돼지 93.6%, 염소 95.4%로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처음으로 90%를 넘긴 돼지는 올해 3월과 4월 잇따라 93.3%를 기록한 데 이어 5월 말 93.6%까지 올라섰다.

이는 전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 비용을 전액 지원한 데 따른 성과로, 올해 사업비는 101억원이다.

염소는 방목해 사육하는 특성상 포획해 백신

접종하기가 어렵고, 포획했다더라도 계속 움직여 약을 잘 못 주입하는 경우도 있다. 또 무리에서 빠져나간 개체가 접종에 누락되기도 해 항체 양성률이 비교적 낮았다.

이에 전남도는 올해 마리당 8,000원인 염소 포획접종시설비를 1만 원까지 올리고, 17만 1,000마리의 접종을 지원해 지난해보다 7.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냈다.

소의 경우 접종이 어려운 고령농가나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에 공수의를 투입해 접종을 지원하므로, 항체양성률이 100%에 근접하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에서 계속 발생하는 구제역은 언제 든지 유입될 수 있는 가축질병”이라며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마쳐 구제역 없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전남도, 지명에 지역 정체·역사성 담는다

35건 부여·변경...일제 잔재 정비

전남도는 11일 “도지명위원회를 열어 총 35건의 지명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지명위원회 위원장인 문금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최근 비대면으로 개최된 회의에서는 법률상 고시하지 않고 사용 중인 지명 제정, 일본식 의식 한자 변경, 교량·교차로 개설에 따른 인공지명 제정 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일본식 표기 의식 지명을 바꾸는 등 3건을 변경했다.

도 신규 지명 제정 32건에 대해서도 지명유래

등 철저한 문헌 및 현지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지명을 선정·제정했다.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영암·해남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지난 1월 명칭 공모 결과, ‘솔라시도대로’라는 명칭이 당선돼 해당 지역(영암, 해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규 지명으로 선정해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한 지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문금주 부지사는 “심의안이 원안 가결되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전남의 지명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자원이 되도록 지명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도, 식품제조-유통업체 상생협력 선도

9개 업체와 28억 규모 협약

전남도가 지역 식품제조업체의 수주물량 확대에 전력을 서울·광주 등 9개 유통업체와 28억 원 규모의 위탁생산 협약을 이끌었다.

전남도는 11일 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 식품제조업체, 유통업체 관계자와 나주·구례·곡성·영광·함평 5개 시군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제조-유통업체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식품 위탁 생산과 제품개발, 원료공급 등에 상호 협력한다. 시군과 식품산업연구센터는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와 판매촉진, 홍보, 신제품, 디자인 개발,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6개 식품제조업체는 평균 가동률이 10~20% 향상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올해 연말까지 60여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1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주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선우 기자

“나주 초당옥수수 30분만 4,760만원 매출”

남도장터 ‘라이브커머스’ 활용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농수축산물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도내 농·어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온라인 거래방식으로, 도는 농수축산물 유통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지난해 사업을 시작했다.

올 들어 6월 말까지 남도장터에 입점한 농·어가 및 소상공인 등 50개 업체의 파프리카, 김치, 고구마, 전복 등 농수축산물을 실시간 소통

판매로 홍보해 2억 722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선정 업체에는 방송 판매자 인건비, 쇼핑 지원금 등으로 쓰일 운영비 400만원씩 지원했다. 올해부터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상시 홍보하는 상세페이지까지 제작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총 100개 농·어가와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판촉할 계획이다.

실시간 소통 판매는 쇼핑라이브 1회를 60분으로 구성해 2개 업체 제품을 30분씩 판매한다. 참여를 바라는 농·어가와 소상공인은 남도장터에 입점 후 시군 농식품유통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6월 28일 방송된 나주 초당옥수수가 4,760만원으로 최고 매출실적을 거뒀고, 완도 전복이 1,978만원, 담양 약과가 1,808만원, 나주 소고기가 1,7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하준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접속하도록 축제, 관광지와 연계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해 판매 부진으로 힘든 영세 중소농과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들에 환한 웃음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온라인 판로확대 지원사업’을 통해 홍어, 계장, 복숭아, 장어 등 171개 업체의 실시간 소통 판매를 진행해 5억 4,378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오선우 기자

32년만 지방자치법 개정...

1면에서 계속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별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지방자치법은 아직 초기 단계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감사관·조직관·예산관 등 완벽한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이 힘을 모으아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대학 정치외교학과 A 교수는 “현재 법 시행 초기기 때문에 아직 가타부타 할 단계는 아니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필요하다면 문제점을 차츰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양·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여러분의 취업성공, 활기찬 경제도시 남구가 함께합니다

남구 일자리박람회 607-2672
취업상담 및 알선 607-2675
남구 공공일자리 607-2673

남구 취업지원센터

7월 11일은 인구의 날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NAVER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림 박배성 302-0316-649511

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본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